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철새축제, HPAI 발생 위협한다 AI 유입경로 재조명 필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철새들의 군무(群舞)를 보기 위해 많은 애조가(愛鳥家)들이 철새도래지를 찾고 있다. 국내에는 천수만 등 유명한 철새도래지 곳곳에서 해마다 철새축제를 앞두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러한 일들이 양계인들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정부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2003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발생되었던 HPAI에 대한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한 유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차단방역을 위주로는 보다 강력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철새로부터의 유입에 대해서는 충남 천안 풍세천과 충북 청원군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 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으며, 7개 발생지역에서의 바이러스가 동일하고, 일본에서 발생되었던 바이러스도 같은 바이러스로 확인되면서 철새의 유입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군산시에서는 '제4회 군산세계철새축제'를 개최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오해와 진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와 철새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내보내면서 생산자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본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정확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2006년에 작성된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메뉴얼'과 국민일보에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해명에 나서는 등 철새축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와 철새도래지가 서로 상이한 점과 1997년 홍콩에서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한국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철새와 무관한 것으로 단정지었다.

또한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전적 다양성이 결여되고 밀집된 형태로 키워지는 가금류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와 철새 이동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좁은 닭장 등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키워지는 가금류와 가금류 유통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물론 철새가 농장 안으로 직접 바이러스균을 옮기지는 않았지만 매개체를 통해 전파될 가능

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철새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농가에서는 가급적 이러한 축제현장의 접근을 삼가고 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발판소독소 설치 및 장화갈아신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예방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본다.

동물용 항생제 규제 강화 움직임 축산업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마련 시급

최근 양계산물의 안전성 문제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08년 7월 1일부터 인 수공용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4종, 총 134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및 국내 제조(수입) 금지조치가 내려지는 등 항생제 잔류 방지를 위한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25종으로 제한되었던 사료첨가용 항생제 7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업계와 정부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퀴놀론계 항생제가 문제시 된 것은 지난 5월 29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플로르퀴놀론계 합성항균제의 내성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어 유통중인 모 계열업체의 닭고기에서 항생제가 다량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방송을 타면서 대책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번에 허가취소 및 국내 제조(수입) 금지조치가 내려진 품목으로서는 닭고기 유래 식중독균의 95.9%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시프로플록사신을 비롯해 노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관련제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들은 일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나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수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란과 닭고기 제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2세대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에 대해 규제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엔로플록사신은 10여년전에 비해 약효가 거의 없지만 가격이 싸고 구하기 쉬워 쉽게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위해 배합사료의 항생제 7종에 대해 감축하는 방안도 업계에 고 민거리로 다가서고 있다. 25종이던 사료첨가제를 18종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농림부 및 시민단체 들을 중심으로 '항생제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이 여러차례 개최되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본회에서는 항생제 사용 규제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항생제를 줄일 경우 오히려 항생제 남용을 부추길 수 있으며, 대체제 개발이나 충분한 영향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내성이 높거나 인수공용 약제, I/E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약제, 약효가 거의 없는 약제를 중심으로 제외하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08년 4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맞추고 있어 범업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동물복지 문제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 UEP(계란생산자협회) 사례 본 받아야

과거에는 동물복지 문제가 양계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유럽에서 10여년전 기존 케이지를 줄여나가는 움직임을 보일 때에도 하나의 해외토픽 정도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는 결코 남의 일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2006년 여름 갑자기 명동에 나타난 케이지 안의 두여인이 누드 퍼포먼스를 시작하면서 서곡이 시작되었다. 당시 '병아리를 고문하지 말자'라는 피켓을 들고 모 외식업체를 비난하는 장면이었다. 금년에는 한국동물복지협회가 3년여에 걸쳐 돼지와 닭들이 고통스러운 사육조건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공식 비판을 하고 나섰다. 뒤이어 KBS의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산란기계 닭'을 방영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한·EU FTA가 진행중에 있으며, 국내 시장을 노린 복지케이지들도 국내 시장을 노리기 위해 본격 뛰어 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물복지에 대한 막연한 예상만을 추론할 때가 아니다. 양계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1999년 동물복지연구회를 구성하여 대응책을 마련했고 미국계란생산자협회(UEP)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실시한 결과 미국에 맞는 동물복지 사육지침서를 마련하면서 유럽의 어떤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카드를 만든 것이다. 양계농가는 UEP 동물복지 지침서를 기초로 UEP가 지정한 제3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통과한 농가는 UEP 확인 마크를 찍어 타 계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동물복지 관리규정에는 계사 m²당 수수, 케이지내 생활면적, 부리자르기, 환우, 이동시 취급, 운송, 도계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사항들을 보면 수당 면적이 432~574cm²이어야 하고, 부리자르기는 10일 이전에 실시하며, 절식·절수법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계전 24시간 이상 절식해서는 안되며, 닭 이동시 골절상이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내용중에는 국내 여건과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마음가짐으로 미리 준비해 가는 모습은 배울 점으로 생각한다. 동물복지 문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문제 등 무조건 닦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를 포함하여 관련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는 대안마련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양계**